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2016년 니카라과 대선의 역사적 의미

임상래

니카라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많은 나라이며 아이티, 볼리비아 등과 함께 아메리카의 최빈국중 하나라는 정도가 전부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특별한 것이 없는 나라이다. 고작해야 최근 한·중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 간 교역이 좀 진전되리라는 예상정도이며 또 FTA 협상 타결로 최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니카라과 대통령을 예방했다니 관계 개선을 기대해봄직한 정도라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다. 니카라과는 역사·문화적으로 중미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특히 니카라과는 식민시대 과테말라와 함께 중앙아메리카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독립 이후 자유와 보수 간의 대립이 심했고, 유럽 열강과 미국이 개입이 끊이지 않던 나라였다. 특히 니카라과는 쿠바혁명 이후 좌파 혁명세력이 반미 무력투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1월의 니카라과 대선에서 좌파 여당이 승리한 것은 좌파의 퇴조와 우파의 확산이 교차되는 현 시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정부통령으로 당선된 오르테가 부부(출처: <http://babalublog.com>)

1. 니카라과혁명과 라틴아메리카 좌파

2016년 11월 25일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카스트로는 게릴라전을 통해 1959년 1월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무장 혁명을 성공시킨 인물이었다. 혁명이 성공하여 쿠바는 이른바 ‘카스트로주의’(또는 피델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중남미 혁명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좌파 혁명의 메카가 되었다. 이후 카스트로는 2006년 동지이자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정권을 넘기고, 2008년 공식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반세기 동안 쿠바혁명체제를 이끌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또 대외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좌파 혁명을 지원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립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반미주의의 신기원을 연 인물이었다. 따라서 쿠바혁명은 라틴아메리카 좌파 지식인에게 ‘다른 세상도 가능하다’(Otro mundo es posible)는 이념적 지평을 확대시켜준 일대 사건이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와 독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쿠바혁명의 역사성



1985년 1월 10일 다니엘 오르테카의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출처: <http://www.foxnews.com>)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979년 니카라과혁명의 역사적 중요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니카라과혁명은 쿠바혁명 이후 결실된 최초의 ‘또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출신인 다니엘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 Frente Sandinista para la Liberación Nacional)을 이끌고 아나스타시오 소모사(Anastasio Somoza) 친미 독재정권에 투쟁하였고, 1979년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어 1984년에는 대통령이 되었다. 오르테가는 1990년 재선에 실패했으나 2006년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여 현재까지 니카라과를 통치하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 좌파 정권과 연합하여 중미 사회주의연대를 이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20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니카라과혁명과 쿠바혁명은 닮은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이념과 업적에 볼 때 오르테가는 카스트로의 수제자인 셈이다. 오르테가는 혁명가로서 카스트로를 추종했으며, 개인적으로도 카스트로와 절친했다. 2014년 공개적으로 치러진 카스트로의 마지막 생일에서 오르테가는 ‘위대한 인물을 준 위대한 쿠바에 감사한다’라고 카스트로를 칭송하기도 했다.

니카라과혁명이 쿠바혁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오르테가는 집권당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하 ‘산디니스타 당’) 후보로 나서서 72.5%의 지지를 얻어 3선 연임에 성공하여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니카라과를 이끌게 되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임기동안 각종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친기업 정책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 치안도 크게 개선하여 중·하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지지자는 대통령보다는 사령관(comandante)으로 부르는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 당을 이끌고 1984년 대통령에 처음 올랐다. 이어 두 차례 도전에서 낙마했다가 2006년 대선에서 권좌에 복귀한 뒤 2009년 재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한 헌법이 위헌이라는 해석을 끌어내 2006년과 2011년에는 연이어 당선됐다. 이번 대선 승리로 오르테가는 총 7번 산디니스타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통산 4선이자 3선 연임에 성공하여 니카라과 현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오르테가의 대선 승리는 라틴아메리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비록 카스트로 서거 소식에 가려 그 의미가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오르테가의 3선 성공은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약진 상황 하에서 ‘아직 좌파는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 지형은 한때 ‘핑크 타이드’(pink tide: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로까지 부르던 좌파 물결이 작년 아르헨티나에서 12년 만에 우파 마크리 정권이 들어서고, 올 6월 페루에서 중도우파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급변하였다. 8월에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카스트로는 사망하고, 라울 카스트로와 같은 쿠바혁명 세대는 정치 일선에서 퇴장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니카라과 대선에서도 우파가 승리했다면 중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은 급속하게 우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르테가의 승리는 위기의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

또 쿠바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함으로써 서방과 공산 진영이 맞서 대립하던 냉전시대의 지도자 중 생존 인물이 거의 다 사라졌다.



2009년 미주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한 오르테가와 오바마(출처: <http://www.lavozdelsandinismo.com>)

이런 상황에서 오르테가는 미국과 우파의 공세를 경험하여 이에 맞설 전략을 가진 거의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오르테가는, 카스트로만큼은 아닐지라도, 라틴아메리카 좌파 리더십의 만형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과 함께 중남미 좌파 연대를 이끌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추락과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르테가의 대선 승리는 우파의 확산을 저지하고 ‘핑크 타이드’를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니카라과와 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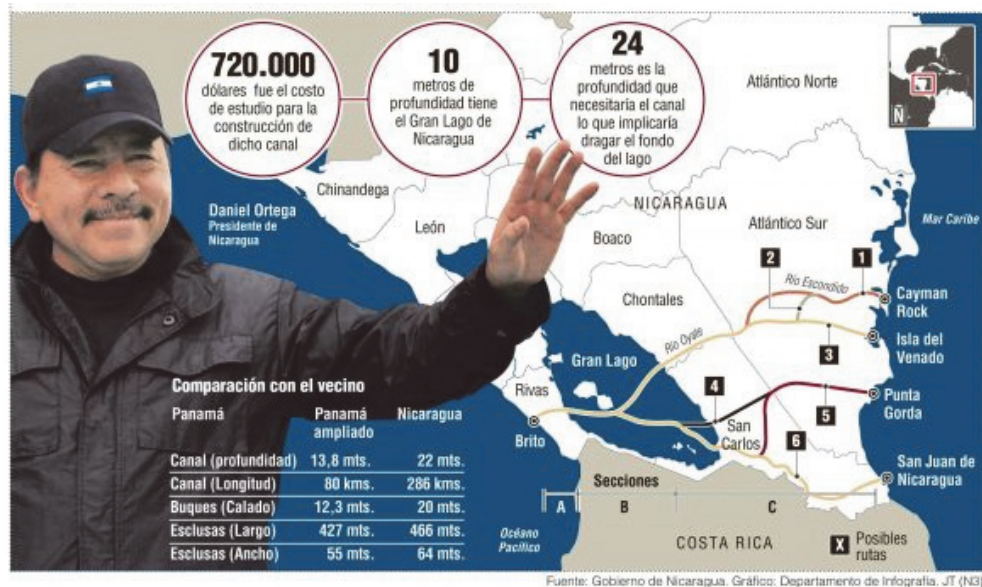
오르테가 정권을 전망함에 있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맥락은 니카라과가 지구상에서 미·러·중 3강이 가장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다. 지금껏 니카라과만큼 라틴아메리카에서 3강이 첨예하게 맞섰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른 중남미 국가처럼 니카라과에게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였다.

특히 산디니스타 혁명 이전 니카라과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였다. 미국은 쿠바에서처럼 니카라과에 대해서도 친미정권에게는 독재도 용인해주었고, 이에 보답하여 소모사정권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에 가장 충실한 정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니카라과혁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친미의 청산이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반미를 내세우는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이 콘트라스 반군을 지원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니카라과와 미국이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다. 따라서 오르테가 정부의 반미가 최근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현재도 양국은 최소한의 공식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르테가는 줄곧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비판하여 왔다. 또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의 선거 공정성 시비를 내정 간섭으로 몰아붙이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등 이른바 ‘미국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르테가 정권은 강한 불만을 표명해 왔다. 이런 문제들이 더 격화된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 발동 등으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니카라과에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집행될 3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철회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니카라과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오는 송금은 국내총생산의 거의 10%에 이르며, 니카라과 수출의 40%가 미국으로 간다. 또 미국은 니카라과 관광의 큰손이기도 하다. 미국에게도 니카라과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특히 니카라과와 러시아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최근 중미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될 될 가능성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다.

반면 니카라과는 러시아와 현재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 직후 미국 정부가 선거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을 때, 러시아 정부가 신속하게 오르테가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니카라과-러시아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산디니스타 혁명 이후 러시아는 미국을 대체하면서 니카라과 대외관계의 중심국이 되었다. 양국의 밀월은 2007-2014년에는 곡물과 자동차 등 러시아



니카라과 운하의 예상 경로와 파나마 운하 비교(출처: <http://www.reddirtreport.com>)

의 경제 원조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2015년부터는 TS 72 탱크 등 러시아제 무기 도입 등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올 해 니카라과 군 열병식에 러시아제 전차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니카라과는 러시아 위성을 통한 정보 통신 기지국을 수도 인근에 건설하고 있다. 또 미주 대륙에서 러시아의 정보활동에 협력하고 있으며, 그간 미국과 공조해오던 반마약 작전도 러시아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미국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게 니카라과는 대미관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이다. 미국이 유럽, 우크라이나, 또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때, 니카라과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반격용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는 러시아, 경제는 미국’이라는 오르테가 정부의 외교전술이 라틴아메리카적 모색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미국이나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운하 건설을 고리로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기실 중미는 남미와 북미가 이어지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다. 니카라과는 식민

시대부터 운하 건설을 추진하였고, 파나마 운하 개통 이후에도 운하 수입과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운하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여 곡절 끝에 2013년 니카라과 의회는 중국의 ‘홍콩-니카라과 운하개발’(HKND)가 운하를 건설하고, 운하 개통 후 10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운하 건설 사업권을 승인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파나마 운하 개통 100주년을 맞아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선물로 받았다. 이는 그간 중국 정부가 공들인 추진한 중남미 외교의 개가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운하 건설은 현재 사업성 문제, 환경파괴 문제, 미국의 견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운하 건설을 통해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니카라과-중국 관계는 향후에도 계속될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니카라과 대외 관계에 대한 전망은 미-러 양강 체제에 중국이 가세하여 새롭게 재편될 G3 프레임 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3. 오르테가 정권의 과제

국내적으로도 오르테가 정부의 앞길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선거 뒤판이 개운하지 않다. 2011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선거법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선거법원은 정부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낮은 투표율과 미주기구와 유럽연합의 선거 참관인 입국 거부도 오르테가의 대선 승리를 빛 바라게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오르테가가 72.5%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투표 포기가 의외로 높았을 수 있다는 정보가 많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투표율이 68.2%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선거 투표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도 있어, 이것이 공정성 시비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대선 승리가 산디니스타 혁명의 인정이자 계승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많은 국민이 오르테가 대통령과 현정치체제에 기권으로 저항한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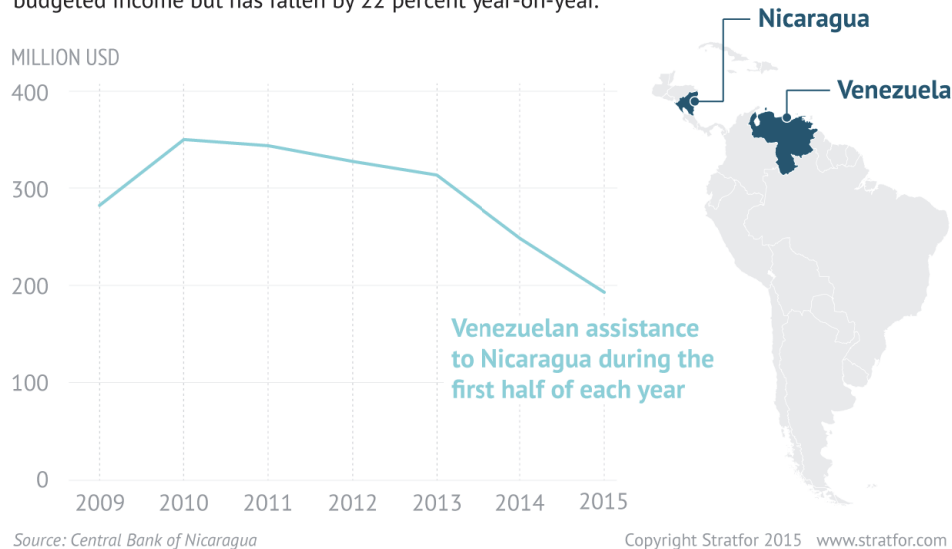
니카라과 운하 건설 반대 시위(출처: <http://www.bbc.com>)

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니카라과 대선은 ‘앞면은 승리이지만 뒷면은 포기라고 쓴 동전’이라는 논평은 나름의 일리가 있다.

2006년 재집권 후 오르테가는 경찰과 군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산디니스타 내 반대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협력과 탄압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마키아벨리적 지도력으로 산디니스타 당 내의 절대적 리더십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르테가 리더십에 대해 당내 불만과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오르테가는 이번 대선에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부인을 내세웠으며, 오르테가가 당선됨에 따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부 정·부통령이 탄생했다. 부인뿐만 아니라 오르테가 자녀 등 가족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오르테가 자신이 무너뜨렸던 소모사 일가 통치(12937-1979)와 같은 왕조를 건설하려 한다는 비난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또 오르테가가 장기 집권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디니스타 당내의 비주류파를 중심으로 ‘이제 산디니스타 당은 없고, 오직 오르테가의 사당만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지만 오르테가 리더십은 산디니스타 당 내부에서부터 도전받고 있다.

2016년 니카라과의 두 키워드는 대선과 운하였다. 특히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니카라과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정부 발표에

Venezuelan aid totals more than 30 percent of Nicaragua's annual budgeted income but has fallen by 22 percent year-on-year.



베네수엘라의 대니카라과 원조 감소(출처: <https://www.stratfo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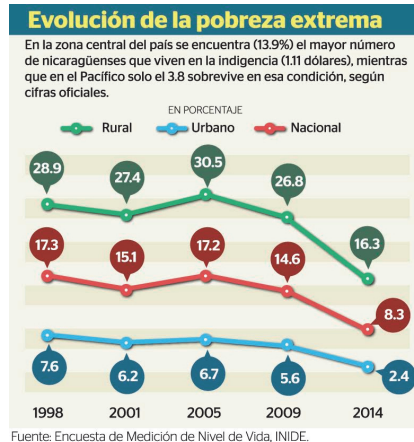
의하면 5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그리고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가 5만개나 된다는 운하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시위가 일 년 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운하 건설 예상 지역인 니카라과 남부 농민의 반대가 가장 격렬하였다. 문제는 운하 논란에 여러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지만, 중미 최대의 종다양성 지역에 대한 훼손과 원주민 공동체의 해체와 인권문제도 중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정부가 내외국인을 안 가리고 운하반대론자를 탄압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니카라과 정부가 지난 6월 운하 문제를 조사하던 4명의 멕시코 환경 운동가를 구금하고 강제 추방하여 멕시코와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운하 건설 논란이 다중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운하 문제는 스페인어식 표현으로 ‘신발 속의 돌맹이’(piedras en el zapato)로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기실 이번 대선 승리도 그간 오르테가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산디니스타 혁명 성공 이후 들어선 오르테가 정부가 집권 5년만인 1990년 선거에서 우파 야당에게 정권을 내준 것은 민생경제의 실패 때문이었다. ‘경제

없이 집권 없다'는 교훈을 얻은 오르테가 정부는 우클릭을 통해 경제 발전 노선의 변화를 모색했고, 재집권 후 제일 먼저 한 것도 기업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였지만 정부는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덕분에 니카라과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관계는 현재 원만한 편이다. 또 의회도 여당이 다수당이며 노조와의 관계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현재 니카라과 정국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베네수엘라 문제가 변수이다. 오르테가 정부는 빈곤퇴치정책(Hambre cero)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전 국민의 1/3을 차지하는 빈곤층은 이번 선거에서도 오르테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오르테가 정부의 사회구호 정책의 주요 재원은 베네수엘라의 협력기금이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협력기금 지원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발 위기로 야기된 문제도 오르테가 정권이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코만단테, 즉 사령관은 민중 봉기를 이끈 지도자를 일컫는 존칭이자 인민의 친구라는 애칭이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유일(唯一)한 반미·좌파·무력혁명인 쿠바혁명과 니카라과혁명의 두 사령관이 2016년 11월 세계 뉴스의 주인공이었다. 카스트로주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오르테가가 니카라과의 4선 대통령이 되었고, 라틴아메리카 반미 좌파 운동의 심장이던 피델 카스트로가 서거하였다. 두 사령관의 퇴장과 승리의 오버랩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임상래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부 교수



니카라과 정부 통계에 따른 빈곤율 감소
(출처: <http://www.laprensa.com.ni>)